

# Dave Mathewson 박사, 신약 문학, 강의 12, 복음 주제 및 사도행전 소개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Dave Mathewson 박사의 신약 역사와 문학 강좌, 강의 12, 복음 주제 요약 및 사도행전 소개입니다.

이제 1차 시험에는 사도행전 자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2차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복음서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자료는 시험에 적합하지만 사도행전의 자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일찍 끝내면 최소한 사도행전은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 다음 1/4, 10, 어쩌면 조금이라도 그 근처에서 멈추고 나머지 시간은 검토 세션에 할애할 계획입니다. 나는 그것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시험에 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위해 공개하겠습니다.

따라서 검토 세션의 길이는 귀하에 따라 달라집니다. 밖에 나가서 날씨를 즐기고 싶다면 모두 조용히 하세요. 시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밖에 나가서 일찍 끝내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이나 시험에서 기대할 수 있는 내용, 노트에 공백이 있거나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 있는 경우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수업의 마지막 20분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로 질문에 대해 공개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이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복음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다시 사도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괜찮은.

아버지, 좋은 날과 따뜻한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동안 밖으로 나가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신약성서의 아주 작은 부분과 구약성서에서 우리에게 주신 전반적인 계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우리가 복음서를 새로운 시각으로 읽고, 그들이 그리는 예수님에 대한 관점과 다양한 초상화, 그리고 그분을 알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도록 도전과 격려를 받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괜찮은.

우리는 복음서를 단순히 내용을 파악하기보다는 주로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건대, 당신이 독서를 통해 그것을 알아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각 복음서의 뚜렷한 강조점이 무엇인지 강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교회가 신약성서에 단지 하나의 복음서가 아닌, 또는 그것들을 모두 하나의 큰 복음이나 삶으로 결합하는 대신에 네 개의 복음서를 허용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스도여, 교회는 네 복음서가 우리 정경에 들어가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고 노력한 것은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여러분에게 각 복음서의 독특한 점을 맛보게 하려는 것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강조하지 않는 정도까지 그들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또는 적어도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여 복음서의 주요 주제와 주요 강조점으로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여 각 복음서 저자의 독특한 방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십시오. 모순이 아닌 보완적인 방식으로, 각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 전달하는 독특한 관점은 무엇입니까?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제가 처음으로 들었던 복음서 형식의 수업은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수업이었습니다. 실제로 대학교와 대학, 특히 성경 대학과 기독교 교양 대학 환경에서 강좌를 개설하는 것은 매우 전통적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신이 하는 일은 네 가지 복음서를 모두 활용하여 그리스도가 누구였으며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일관성 있는 설명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예수가 누구였으며 무엇을 했고 무엇을 가르쳤는지에 대한 장대한

이야기나 그림으로 끝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고 복음서를 조화시키고 그리스도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묘사를 생각해 내기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내가 말했듯이, 신약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네 가지 별도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그리스도의 장엄한 삶이나 그리스도의 삶이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관한 수업에 함께 집어넣을 때의 위험 중 하나는 도움이 되고 필요한 만큼 우리가 독특한 것을 무디게 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복음서의 개별 음성. 그러므로 아마도 우리가 모든 복음서를 그리스도의 위대한 삶이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통합하기 전에 각 복음서가 제공하는 예수에 대한 독특한 목소리나 독특한 관점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수업에서 시도한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의 독특한 주제와 관점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 역사에는 2세기경에 타티아노(Tatian)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전에 이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Tatian은 Diatessaron이라는 작품을 쓰려고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테스트를 위해서든 디아테사론(Diatessaron)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디아테사론은 그가 쓴 이 책의 이름일 뿐이고, 네 복음서를 하나로 묶으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말했듯이 꽤 흥미로운 요한복음부터 시작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상당히 신뢰할만하다고 생각하는 일부 학자들조차 요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했듯이 요한이 특징지어지는 방식 중 하나는 보다 신학적이고 영적인 복음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예수에 관한 역사적 정보를 얻기 위해 요한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더 신학적이고 교회의 가르침 등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타티아누스는 요한부터 시작하여 네 복음서를 모두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엮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그것은 결코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결코 그것을 채택하지 않았으며 타티아노스의 접근 방식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네 복음서를 그대로 두었고,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완전하고 복잡한 이해에 대한 뚜렷하고 독특한 기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는 예수를 모세처럼 이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새로운 모세와 같은 여러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로 묘사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됩니다.

그는 다윗의 조상이자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왕으로서 다스릴 권리를 가진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방인의 포함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성경 전체의 절정이자 성취이신 분으로 묘사됩니다. 마가는 예수를 그의 인성과 신성 사이의 균형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고 죽기 위해 오시는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묘사합니다. 이는 누가가 예수를 구주로 묘사하거나 예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거나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 하시는 일을 묘사하는 특징적인 용어 중 하나입니다. 누가는 또한 마태가 구약성서의 성취에서 묘사한 것처럼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묘사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도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남들이 다 거부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자들, 만질 수 없는 자들을 예수님은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이 등장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요한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양으로 묘사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 즉 로고스이시며, 하나님의 계시 자체이십니다. 비록 네 복음서 모두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명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으로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신적인 존재, 즉 하나님 자신으로 분명하게 묘사됩니다.

따라서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제시하고 묘사하는 독특한 방식이 있으며, 이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우리는 가난해질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교회가 그 네 사람을 내버려두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네 가지 다른 관점과 다른 강조점과 주제가 없다면 우리는 약간 가난해질 것이며 예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모든 복음서를 그리스도의 삶으로 너무 성급하게 결합시키기 전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독특하게 말하려고 하는 한 그들의 독특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가 무엇을 하는지,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결합하여 네 가지 복음서를 함께 볼 때 네 가지 복음서 모두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네 가지를 모두 더한다면, 내가 예수의 초상화를 그린다면 복음서에 나오는 것 같은 것을 무엇을 강조해야 할까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통합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저는 특히 우리가 간과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복음서 필자들의 주제가 있습니까? 자, 그 중 몇 가지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주제 중 하나는 예수의 신성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것 같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대부분이 예수의 인간성을 상상하는 데 조금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내가 예수의 초상화를 그린다면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의 인성인데, 그것은 가련한 예수를 피하는 것이다.

Docetic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그리스어 단어인 dokeo 에서 유래한 것인데, 이는 보인다, 생각하다, 또는 보인다는 뜻입니다. Docetic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예수의

온전한 인간성을 부인했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에 관한 아주 초기의 이단이나 거짓 가르침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는 인간으로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docetic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헬라어 단어는 보인다는 뜻이고, 가현론(Docetism), 즉 예수에 대한 가현론적 견해는 예수께서 인간으로 나타나셨거나 겉으로만 보이셨다는 뜻입니다. 아주 초기에, 그리고 이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많은 초기 교회 교부들이 예수에 대해 생각하고 그들이 생각한 것을 공식화하기 시작했을 때,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그들 중 대다수, 일부는 영지주의적 사고, 육체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강조하는 플라톤적 사고 등 그의 인간성을 부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Docetism은 예수가 인간처럼 보이거나 겉으로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간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초기 이단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신이라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인성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이 드러나는 곳을 복음서에서 발견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을 읽고, 그분의 온전한 인성을 대면하기 위해 누가복음 1장, 2장, 3장까지 아주 멀리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는 우리가 말했듯이, 누가는 예수의 어린 시절에 대해 언급한 유일한 작가입니다.

거기에는 흥미로운 문구가 있는데,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내 말은, 누가는 어떻게 예수에 대해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성장해야 합니까?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의 온전한 인성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공개합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총명이 자라가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배워야만 하는 무식한 인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야 합니다. 나중에 복음서에는 특히 마태, 마가, 누가가 모두 가지고 있는 흥미로운 문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도 아니 나니 인자가 임할 때는 나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돌아올 것이다. 아직은 아니지만 예수께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다시 오실 때를 언급하면서 예수께서는 그 때가 언제인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그 일이 일어날 때와 날과 그 때를 아신다.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복음의 마지막 부분인 겔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기 직전에 에덴 동산이 아니라 예루살렘 밖 겔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묘사하는 복음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 얼마 지나지 않아 경비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재판장으로 끌고 가서 죽었습니다. 정원에서 그는 기도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누가는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잔이 예수님의 고난과 그가 곧 겪게 될 죽음에 대한 은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아버지, 나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나의 투표권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앞으로 다가올 일, 곧 자신의 죽음에 직면하여 공포에 떨며 반응하고 계십니다. 매우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물론 예수님의 다음 말씀은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아버지의 뜻이요, 그런 다음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러나 그 순간 누가는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매우 인간적인 반응과 감정을 겪고 계신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에서 물러나지 않지만, 그분의 인성을 축소시키지도 않고 그분을 온전한 인간의 용어로 묘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학기 후반에 이야기하게 될 히브리서에서 저자는 아마도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기능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모든 면에서 우리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가지고 있지만 그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즉, 대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신이 대표하는 백성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온갖 유혹을 경험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성적 유혹을 받으셨나요? 그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유혹을 받는 것과 실제로 죄를 짓는 것 사이의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결코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의 온갖 유혹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성서 전체, 특히 복음서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인성을 갖춘 예수님을 묘사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동시에 여전히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의 완전한 신성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예수의 신성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단지 인간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예수의 측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세기에는 아마도 그 반대였을 것입니다.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경향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저자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함께 예수님의 인성과 그분의 완전한 인성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예수 초상화의 첫 번째 부분 또는 측면은 가학적 예수를 피하는 그의 인간성일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제가 사용하고 싶은 또 다른 예는 Docetism이 어떻게 우리 언어의 일부와 교회 환경에서 부르는 일부 노래에 무의식적으로 스며드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항상 크리스마스 때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오싹해진다고 생각한다. 구유에 있는 저 곳으로 가면 그는 울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울지 않으셨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그는 인간이었습니다.



다른 인간 아기들처럼 그도 울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울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매우 교훈적인 견해입니다. 또는 우리가 예수의 그림을 그릴 때, 예수께서 빛나고 머리 위에 후광이 있는 곳에 그릴 때, 그것은 확실히 예수 탄생의 의미를 포착하지만, 그가 단지 평범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모호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경험하신 것은 단지 평범하고 매우 겸손한 인간 탄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련한 예수를 피하십시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예수님의 초상화의 두 번째 측면은 버림받은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동정심입니다.

인기 있는 예수를 피하세요. 즉, 우리가 특히 누가복음에서 보았듯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지만, 예수께서는 종교 기관과 엘리트의 환심을 사려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대중의 인도를 따라가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담대하게 선을 넘으시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사회의 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육체적 접촉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특히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대한 동정심을 계속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대중적이지 않을 때, 종교 엘리트와 기득권층은 그것과 아무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누가의 경우에서 예수님을 종종 곤경에 빠지게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그것이 그를 구약의 율법과 충돌하게 만들었을 때. 그는 확실히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이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또는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일종의 의식 위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꺼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예수를 피하는 것입니다.

종교, 사회 엘리트, 대중이 아닌 소외되고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세 번째 강조점은 청지기 직분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부유한 예수를 피하는 것.

다시 말하지만, 특히 누가복음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부가 죄악이거나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뢰를 가리거나 가리거나 빼앗는 방식으로 물질적 소유와 부에 대한 신뢰를 두는 위험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반대하시는 것은 재물을 쌓아 두는 것과 재물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산상수훈에서 좀과 동록이 썩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는 돈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유일한 문제는 그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괴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신뢰해야 할 유일하고 합당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는 당신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매우 형편없는 대상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대가로 부를 축적하거나 부를 신뢰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놓치는 것입니다. 특히 북미 지역에서는 이 메시지를 다시 들을 필요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돌아가서 예수님과 그분이 부와 물질적 소유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입니다. 우리는 모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당신 주위에 제자 공동체를 모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소그룹이나 그런 일에 속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예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공동체를 낳을 핵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확산되고 확장되어 결국 지구 전체를 포용할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모든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시작하신 일을 수행할 추종자들의 공동체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을 식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주의적인 예수를 피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도 또 예수님께서 소수의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와 그 중 12명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전에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 같은데,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나요? 내 말은, 왜 안 되는지, 내 말은, 8명은 좋은 소그룹이었을 것이고 아마도 15명은 조금 더 좋았을 것입니다.

왜 12입니까? 네,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즉, 이것이 하나님의 새 백성, 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께서 12사도를 선택하심으로써 하고 계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순종으로 특징지어질 새로운 백성,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시작하신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적어도 복음서에서는 신약성서의 나머지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서와 신약성서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공동체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또는 개인주의적으로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예수의 추종자이자 그리스도인이면서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개인주의와 열망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는 때때로 반문화적인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개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즉 예수께서 세우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즉 믿음으로 그분께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엇에 따라 정의했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뚜렷한 표징은 무엇이였을까요?

당신이 진정으로 이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정체성 표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무엇에 집중했을까요? 네? 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좋아요, 그러면 그들은 특별히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요? 구약 시대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전 희생.

성전 희생, 율법 준수. 그러므로 그것은 당신이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여 성전 제사를 드린 것, 그보다 더 나아가 민족적으로 당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이 주요한 표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누가 참된가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서에서 아브라함의 참된 자녀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냐, 아니면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바로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를 재정의하십니다.

그건 그렇고, 교회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헬라어 단어인 교회라는 단어는 실제로 그리스어 구약성서에서 이스라엘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의 모임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따라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마태와 바울은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지칭하기 위해 빌려온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제 참된 교회, 참된 모임,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더 이상 율법과 성전 제사에 대한 순종과 민족적으로 유대인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직 그 사람의 반응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요인이 율법에 대한 순종과 민족적으로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방인들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함으로써 이스라엘과 동일한 기초 위에서 동등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개인주의적인 예수를 피하면서 공동체에 관심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공동체에서 어떤 의미에서 그분의 대표자가 되고 그분의 사명을 계속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할 추종자 그룹을 준비하십니다. 좋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몇 년 전 내 수업 중 한 사람은 율법주의적인 예수를 피하면서 은혜에 대한 관심을 제안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단지 새로운 율법을 가르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추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도 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롭게 관계를 맺으시고 자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은혜롭게 제공하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산상수훈을 기억하시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의 파산을 깨닫는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 그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예수를 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관심이나 강조를 의미하는 다섯 번째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새로운 율법이나 구원에 이르는 길을 얻기 위한 수단을 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은혜롭게 구원을 제공하시고 그의 백성이 순종으로 그를 따를 수 있도록 은혜롭게 준비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이 네 가지 중 질문 있으신가요? 아마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 어느 것? 방금 인용한 것입니다.

나는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이었어요. 네, 마태복음 5장, 팔복 12절이었던 것 같아요. 응.

괜찮은. 그럼 다음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자체로 독자적인 신약성서의 새로운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이야기라는 점에서는 복음서와 매우 유사하지만 어느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복음서와 다릅니다. 이는 여러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며 제한된 지리적 위치에서 한 사람의 착취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리적 분포는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그것은 결국 전체 그리스-로마 세계를 포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 점에서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이야기인 사도행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도행전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신약성서에서 그 위치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신약성경이 연대순으로 배열되지 않고, 더 논리적이고 주제별로 배열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실제로 신약성서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복음서를 따르며 서신서, 신약의 나머지 부분, 특히 바울의 서신을 자연스럽고 논리적으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것이다.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무엇을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이 이제 그의 추종자들을 통해 어떻게 계속되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음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이 문화를 초월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핵심을 형성할 제자들로 구성된 그룹을 모으시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그것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이 땅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이 추종자들을 통해 어떻게 계속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부재하시는 동안,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역사가 어떻게 그의 추종자들을 통해 계속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추종자들, 그의 제자들. 그런 다음 사도행전은 이들 추종자 중 일부가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신약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다리를 제공합니다. 다시 사도행전은 한 명의 주요 인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주요 인물을 중심으로 하지만 나머지 부분의 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약성서는 이러한 주요 인물 중 일부의 펜에서 나온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와 2서의 편지를 가지고 있고 요한의 편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사도행전의 지배적인 인물, 특히 이 책의 후반부에서 중심 무대를 차지하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바로 다음 신약성경의 가장 큰 저작물이 바울의 펜에서 나온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도행전의 지배적인 인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복음서가 중단된 부분을 다시 시작하여 복음서와 신약성서의 나머지 부분 사이에 완벽한 다리를

제공하고, 예수의 사역이 추종자들을 통해 어떻게 계속되는지 보여 주면서 신약성서의 나머지 부분으로 연결되는 다리를 제공합니다. 신약성서의 나머지 부분을 구성하는 많은 서신의 저자가 된 사람들을 소개함으로써 유언을 맺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는 Luke에 대해 논의할 때 이미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두 권으로 구성된 누가복음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설명한 이유 때문에 신약성서가 정경으로 만들어졌을 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분리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은 비슷한 다른 책들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가지고 갔으며,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나머지 신약성서 사이의 편리한 전환을 제공했기 때문에 분리되었습니다.

Acts는 실제로 개발 방식에 관한 한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쉬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개요를 설명하거나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자의 의도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첫 장과 8절에서 발견됩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처음 몇 구절에서, 예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시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는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추종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아직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에서 그분은 여전히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볼 수 있는 것은 원래 두 권으로 된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께서는 여전히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며, 머지않아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며, 그 후 예수께서 시작하신 일을 계속하는 것은 추종자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떠나시기 전에 추종자들인 제자들에게 지시하신 내용 중 일부는 사도행전 1장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 구절은 요약된 형태로 사도행전의 개요를 제공합니다.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이 어떻게 맞는지 살펴보기 전에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지 좋은 선교 전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치채면 동심원을 그리며 움직입니다. 그것은 바로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에서 시작되어 땅 끝, 즉 땅의 가장 바깥 부분에 이릅니다. 이는 예수님이 훌륭한 선교 전략가이신 것뿐만 아니라 본거지에서 시작하여 바깥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구절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은, 이 구절이 함께 쓰여진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한 선지자 이사야의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사야서로 돌아가면 좋은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퍼져 땅 끝까지 도달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지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사야의 성취 약속, 즉 이사야의 회복과 구원의 약속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다시 구약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과 이제 그의 추종자들이 구약의 모든 예언의 약속과 기대를 성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노트를 보시면, 제가 쓴 23페이지 맨 위에 있는 문구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분리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문구는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32장 15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32장은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오시는 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15절에서는 위로부터 성령이 부어질 때까지 말합니다. 우리를.



그리고 광야는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여겨집니다. 이 문구는 이사야 32장 15절에서 위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음 문구를 주목하세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다시 이사야 43장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다시 오실 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3장, 10장, 12장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택한 종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2절,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을 때에 내가 고하고 구원하고 전하였나니 너희는 나의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이 새로운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이사야서의 성취로 너희가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약속한 회복,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창조를 가져오며, 메시아를 통해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실 날은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예수께서 지금 세우신 이 새로운 백성 안에 있습니다. 이사야 32장의 성취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것이며, 그들은 이사야 43장의 성취에서 그분의 증인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는 또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순서를 주목하세요. 사도행전의 순서는 이사야서 전체의 순서와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49장, 이사야 49장 6절, 이제 들어보세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언젠가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회복시키는 것이 너무 가벼운 일이라고 그분은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주리니 이스라엘도 이방의 빛이 되어 나의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리라.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똑같은 문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그분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이사야서에서 예상하고 예언했던 회복 프로그램을 성취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성령이 이스라엘에게 부어지고,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증인이 되고, 구원을 땅 끝까지 전파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맨틀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이 새 이스라엘, 이 새 교회, 이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게 전달됩니다. 그것은 제자들 안에 핵심 형태로 있으며, 그것이 바로 나머지 세상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한 귀를 구약성서에 맞추고 구약성서를 읽는 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훌륭한 선교 전략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구약에서 이사야가 약속한 것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은 이스라엘 나라에서가 아니라 이제 예수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이 새로운 공동체, 이 새로운 모임, 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았어, 내 생각엔 거기서 멈출 것 같아. 그리고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Acts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시험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단지 그것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그것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질문할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시험은 모두 객관식입니다. 나는 객관식 시험을 싫어하지만 이렇게 큰 수업의 경우 에세이 시험을 주면 다음 크리스마스까지 채점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게도 이 정도 규모의 수업은 객관식 유형 테스트를 제공하는 데 어느 정도 제약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의 성격입니다. 누구나 한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어야 합니다.

20분 안에 끝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중 일부는 전체 섹션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

당신이해야 할 일은 무엇이든. 이번에도 시험에서는 배경 자료와 복음 자료만 다룹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관해 내가 말한 모든 것은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해당 정보는 다음 시험에 표시됩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복음서까지의 모든 배경 자료, 그것이 시험에 나올 정보입니다.

제가 시험에서 하려고 하는 것 중 하나는 여러분이 복음서를 비교하고 대조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복음서의 독특한 점을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도록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할 것입니다. 어떤 복음서가 예수를 새로운 모세로 묘사하는지 물을 수 있고 바라건대 여러분은 마태복음에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 몇몇은 그것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단지 여러분에게 비교를 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복음서 전체에는 주요 강조점과 주제와 관련된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특정한 구절이나 그와 유사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서 전체에 초점을 맞추는 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주요 강조점, 주요 주제, 본문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와 관련하여 특정 구절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고별 담화나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여러 구절을 다루며 그 구절의 내용과 그 구절에 대해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크의 결말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그 마가복음은 8절에서 끝났나요, 아니면 더 긴 결말로 끝났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특정 구절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 구절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은 누군가에게 이 일을 1년 동안 하게 했고 그들은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었고 그들은 네 번의 시험 모두에서 그것을 했습니다.

도표를 만들어 놓고 도표 한쪽 왼쪽에 있는 큰 포스터판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네 복음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일련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한 칼럼은 저자를 말하고, 한 칼럼은 구조를 말하고, 다른 칼럼은 주요 구절, 주요 구절을 말합니다. 또 다른 칼럼은 예수님의 주요 견해를 말하고, 또 다른 칼럼은 주요 강조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 복음에 대해 그녀는 각 사각형에 요약하고 메모에서 정보를 가져와 해당 사각형에 넣었습니다.

에 네 복음서를 모두 살펴보고 그 차이점을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녀는 실제로 매 시험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노트에서 정보를 얻고 모든 복음서를 한 번에 시각적으로 볼 수 있고 비교 및 대조 방법, 강조하는 주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차트를 만드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역사와 함께 역사 섹션에서는 주요 인물, 정치적, 종교적 주요 사건 및 일부 주요 문화적 경향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그 중 두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적어 내려고 할 경우를 대비해 저는 블랙보드에 첫 번째 시험을 위한 학습 핵심, 학습 가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의 계획서와 이 수업의 내용에 대한 노트가 있는 동일한 장소로 가면 1번 시험에 대한 학습 가이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만지는 것 같아요. 당신이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이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모두가 100점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시험은 교과서 읽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교실 토론과 여러분이 가져갈 공책만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또 다시 학습 가이드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경우, 시험에 관한 내용이나 학습 가이드에 관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시험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이나 노트에 적힌 구체적인 내용, 배경이나 복음과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응.

그 차트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핵심 테마. 예수가 누구였는가에만 가장 초점을 맞추지 않은 핵심 주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복음서에서 우리는 주요 강조점, 즉 예수가 어떻게 묘사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복음서의 다른 독특하거나 핵심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역사에 있어서는 인물, 사건, 문화행사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래, 사람, 사건, 종교 운동이요. 우리가 그리스-로마와 유대인 운동, 에세네파, 바리새파와 같은 유대 종교 운동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무엇을 강조했는지, 특히 로마 통치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지 말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쿨란 공동체와 사해 두루마리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경에 관해 조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책이 신약 정경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학습 가이드의 Blackboard에 모든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 가이드를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은. 확신하는.

다양한 역사적 사건의 날짜를 물어보실 건가요? 아니요, 데이트 신청은 안 할 거예요. 아마도 제가 지금 당장은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 구체적인 날짜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나에게는 그런 것들이 가장 먼저 잊혀진다. 차라리 그 사건 뒤에 숨은 주요 의미와 아이디어를 알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이전이나 그의 탄생 중에 일어났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꼭 알아야 할 날짜가 몇 개 있으니 절대 날짜에 대해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의 목적상 알아야 할 날짜는 실제로 없습니다.

복음서의 연대는 어떻습니까? 복음서의 날짜? 아니, 내가 그 얘기를 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질문이 교과서에 있었기 때문에 일부 퀴즈에서 제가 질문한 것 같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묻지 않겠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학자들이 생각하는 순서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날짜는 묻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확한 날짜를 말하기를 주저합니다. 때때로 그들은 약 10년, 서기 60년에서 70년 또는 서기 70년에서 80년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날짜는 묻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1세기에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아는 한, 그 정도는 아마 충분히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 읽기를 수요일까지 끝내야 할까요? 네, 다음 주 독서는 수요일에 해도 됩니다. 그건 좋은 질문이야. 그러니 교과서 읽기는 괜찮습니다.

월요일에는 시험이 끝나면 바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수요일까지는 가능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Dave Mathewson 박사의 신약 역사와 문학 강좌, 강의 12, 복음 주제 요약 및 사도행전 소개입니다.